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티플랙스(081150)

소재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성자

지혜련 선임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리보기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IR협의회



티플렉스(081150)

30년간 흑자 기록, 안정적 성장기반을 통한 전기자동차 부품 사업 활로 개척

기업정보(2021/01/01 기준)

대표자	김영국
설립일자	1991년 12월 13일
상장일자	2009년 04월 23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주요제품	스테인리스 (봉강, 판재, 선재), 희소금속

시세정보(2021/01/15 기준)

현재가(원)	3,29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798
발행주식수	24,268,402
52주 최고가(원)	4,845
52주 최저가(원)	1,025
외국인지분율	3.51%
주요주주	김영국, 김태수

■ 30년간 흑자 기록, 경인지역 최대 스테인리스 소재 가공 기업

티플렉스는 법인 이래 30년간 단 한 번의 적자 없이 흑자를 기록한 스테인리스 소재 가공 전문기업이다. 세아창원특수강과 상호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장기 거래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조달받고 있으며, 경인 지역 최대 스테인리스 자재 구매업체로 원재료 구매 시, 최대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어 우수한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세아창원특수강의 국내 약 10여개 대리점 가운데 동사의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40% 이상으로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 2020년 2분기 매출액, 8년 만에 최대치 경신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13.42% 증가한 355억 원 규모의 매출액을 시현하여 2011년 4분기 매출액(368억 원) 이후 분기 매출액으로 8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하였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여 13억 원을 기록하였다. 비용구조가 슬림화되면서 영업이익 규모도 2019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외형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모두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출 호조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며, 2020년 상반기 수출액은 약 50억 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21.5% 상승하였으며, 올해 사상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 신성장 동력 확보, 전기 자동차 부품 시장으로 확대

최근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에 대한 수요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용 모듈 소재, LNG 선박용 초저온 소재 등 전방산업에서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동사는 2019년 5월부터 전기 자동차 배터리 모듈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전기 자동차 시장 확대에 따라 공급 물량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개별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	1,176.9	17.2	38.3	3.3	28.6	2.4	3.6	2.2	64.1	127	3,358	13.9	0.5
2018	1,216.7	3.4	35.1	2.9	21.1	1.7	2.5	1.6	59.0	87	3,431	33.3	0.8
2019	1,312.2	7.9	39.4	3.0	22.2	1.7	2.4	1.6	55.0	91	4,019	25.7	0.6



기업경쟁력

국내 스테인리스 소재 가공 전문기업

■ 핵심 원자재 조달 경쟁력 확보

- 세아창원특수강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안정적으로 원자재 조달

■ 선재 사업 부문 지속적인 성장세

- 전방산업인 반도체 산업 호조로 CD bar 수요 증가
- 1,000톤 규모로 CD bar 생산능력 확충

재무 안정성 유지

■ 30년간 흑자 기록

- 법인 아래 단 한 번의 적자 없이 흑자 기록
- 최근 5년간 매출 신장 및 수익성 턴어라운드

■ 2020년 2분기 매출액 최대치 경신

- 선재 사업부 수익구조 개선 시동, 감가상각비 감소로 수익성 개선
- 수출 호조로 2020년 사상 최고 수출 실적 기록 전망

핵심기술 및 주력 사업

우수한 수준의 기술 및 생산능력 보유

■ 뛰어난 인발 기술력 보유

- 4~33Ø 규격 인발 가공을 통한 물성 향상
- 표면, 경도 등이 우수한 제품 생산

■ 생산 체계 고도화를 통한 품질경쟁력 구축

- 봉강, 판재, 선재 사업별 대규모 라인 구축
- 공인 인증 확보 등 체계적 경영 및 품질 관리 실시

주력 사업



스테인리스 소재(봉강, 판재 및 선재) 등

시장경쟁력

우수한 가격 경쟁력 보유

■ 세아창원특수강과 장기 거래 유지

- 세아창원특수강 대리점 중 40% 점유율 확보로 업계 선두 유지
- 최대 할인율 적용, 우수한 가격 경쟁력 구축

1,500여 곳의 고객사 보유

■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제품 납품

- 고객사와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
- 다품종, 소량생산, 단납기 전략으로 고객 니즈 충족

최근 변동사항

신성장 동력 확보

■ 전기 자동차 부품 시장으로 확대

- 전기 자동차 배터리 모듈 부품 공급
- 전기 자동차 시장 확대에 따른 공급물량 증가 전망

자산가치 증대 효과

■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협약 체결

- 화성 국제테마파크 인근 토지 55,403m² 소유
이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효과 기대



I. 기업현황

30년간 흑자 기록, 경인지역 최대 스테인리스 소재 가공 전문기업

동사는 법인 아래 단 한 번의 적자 없이 흑자를 기록한 스테인리스 소재 가공 전문기업이다. 1,500여 곳에 이르는 고객사를 보유하여 경기 사이클에 따른 영업 위험을 최소화하고, 세아창원특수강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최대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다.

■ 개요

티플렉스(이하 동사)는 1982년 1월 태창상회로 설립되어 1991년 12월 법인 전환하였으며, 2009년 4월 코스닥 상장하였다. 국내 스테인리스강 가공 전문기업으로 해당 산업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봉강 사업에 이어 판재, 선재 사업에까지 그 영역을 넓혀왔다. 약 1,500여 곳의 고객사를 확보하여 조선 및 플랜트, 반도체 장비, 금속부품, 일반기계,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원자력발전, 건설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다양한 용도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주요 사업 분야로 스테인리스 봉강, 판재 및 선재가 있으며, 그 외 희소금속이 있다.

표 1. 기업 현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회사명	(주)티플렉스	대표이사	김영국
설립일	1991년 12월 13일(법인 전환)	임직원 수	52명
자본금	98,043백만 원	주력 사업	스테인리스 소재(봉강, 판재, 선재 등), 희소금속
발행주식 총수	6,807,745주	본사	경기도 안산시 MTV1로 75
상장일	2009년 04월 23일(코스닥)		

*출처: 3분기보고서(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주요 관계회사 및 최대주주

최대주주는 김영국 대표이사로 17.4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 외 특수관계인인 김태수 상근이사가 6.8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표 2. 주주현황



*출처: 3분기보고서(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주요 경영진 정보

실질경영주인 김영국 대표이사는 법인 설립연도인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동사 경영진을 역임하였으며, 2007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009년 4월 당진공장 준공으로 봉강 사업에 이어 판재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켰다. 2013년 시화 MTV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장을 이전 하였으며, 2014년 2월에는 선재(CD bar) 사업에 진출하였다. 선재 사업부 수주 증가에 힘입어 CDM 라인 설비를 늘렸으며, 월 1,000톤의 생산능력을 확충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전기 자동차 부품 시장으로 진출하여 전방 활로를 개척하였다.

■ 주요 핵심역량

▶▶ 핵심 원자재 조달 경쟁력 확보

동사는 세아창원특수강과 상호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약 30년 이상의 장기 거래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조달받고 있으며, 경인 지역 최대 스테인리스 자재 구매업체로 원재료 구매 시, 최대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어 우수한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 스테인리스 봉강 시장규모는 약 1조 8,374억 원 규모로 세아창원특수강은 국내 봉강 최대 공급업체로 전체 시장의 61~67%를 공급하고 있다. 세아창원특수강의 국내 약 10여개 대리점 가운데 동사의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40% 이상으로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림 1. 주요 사업 분야



*출처: IR 자료(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1,500여 곳에 이르는 고객사 보유

스테인리스강은 산업 경기변동에 민감한 기초산업 소재로서 해당 제품의 수요 변동은 전체 제조업의 경기변동에 선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사가 확보하고 있는 매출처 또한 다양한 사업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변동에 따라 영향을 일부 받고 있으나, 다년간 지속해 온 매출처 다원화로 경기 사이클에 따른 영업 위험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동사는 1,500여 곳에 이르는 고객사를 보유하여, 조선 및 플랜트, 반도체 장비, 금속부품, 일반기계,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원자력발전, 건설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다양한 용도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해당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품종, 소량생산, 단납기 등을 통해 고객 니즈에 맞는 대응 정책을 구축하고 있다. 특정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실적 변동성이 높지 않은 것도 특징이다.



그림 2. 스테인리스강 적용 범위



*출처: 동사 홈페이지

▶▶ 뛰어난 인발 기술력 보유

전방산업인 반도체 설비용 페팅류와 산업용 밸브 시장의 꾸준한 수요 증가로 인해 CD bar 사업 부분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타사와 차별화되는 경쟁력으로 원자재 구매력, 제품의 우수한 품질력 등을 꼽을 수 있으며, 그중 핵심 경쟁력은 인발 기술력 보유이다. 스테인리스 와이어로드를 냉간인발 가공하고 직진도 부여 및 표면처리를 한 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CD bar를 생산하고 있다. 이때 직경 4~33Ø 규격으로 인발 가공함으로써 제품의 물성(표면, 경도)을 향상시켰다. 인발은 다양한 금속이나 합금의 단면을 감소시키거나 변형시키는 공정으로 재료를 밀어 넣는 압출과 달리 잡아당기는 힘을 이용한다. 인발 공정 후, 원통 모형 양쪽 면 중심이 일치하고 완벽한 원형을 이뤄야 하는데 그 원형의 차이를 편경 차라고 한다. 동사의 제품은 편경 차가 오차범위 내(0.5mm)에서 양산되고 있어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 생산설비 현황

1982년 1월 스테인리스 봉강 가공품 생산을 시작으로 판매, 선재 가공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왔다. 2013년 10월 시화 MTV 신공장 준공 및 이전을 기점으로 안산과 당진으로 나누어져 있던 공장들을 통합함으로써 물류비 절감은 물론 생산 효율 또한 증대시켰다. 주요 생산설비는 봉강, 판재 및 선재 사업 영역별로 각각 자체 라인을 형성하고 있으며, 창립 이래로 지속적인 설비투자를 통해 생산역량을 확충해왔다. 최근에는 선재 사업부 수주 증가에 힘입어 CDM(Combined Drawing M/C) 라인 설비를 늘려 기존 월 700톤에서 1,000톤으로 생산능력을 확충하였다. 또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ISO 9001), 환경영경영시스템 인증(ISO 14001), 기술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INNO-BIZ 및 MAIN-BIZ) 등 공인 인증 확보를 통해 경영 및 품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림 3. 주요 생산설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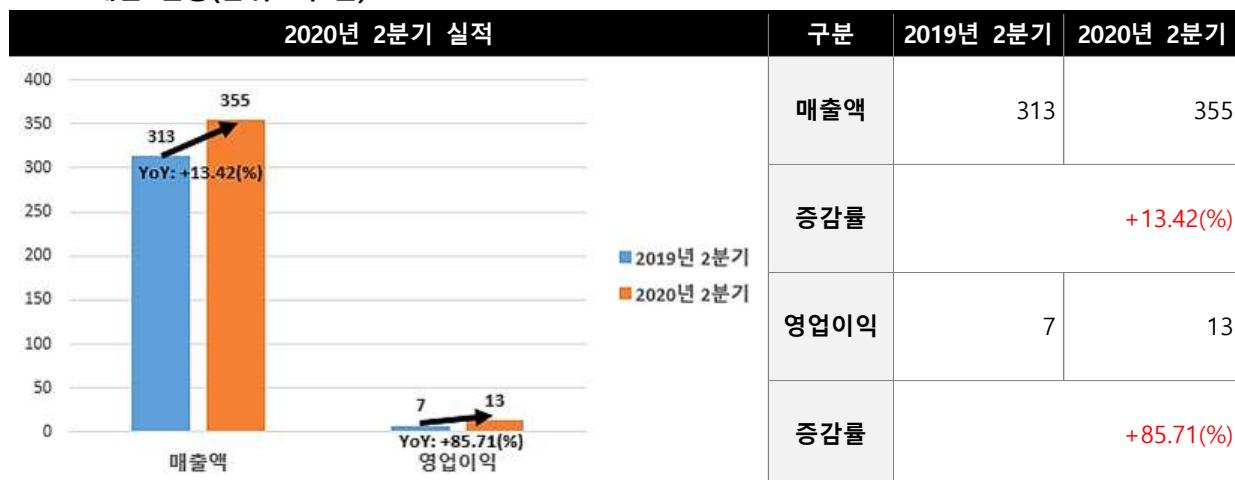


*출처: IR 자료(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매출 현황

동사는 30년간 단 한 번의 적자 없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매출액 약 355억 원대를 돌파하며, 8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하였다. 2019년 약 313억 원보다 13.42% 증가하여 2011년 4분기 이후 분기 매출액을 34분기 만에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약 13억 원으로 85.71% 증가하였다.

표 3. 매출 현황(단위: 억 원)



*출처: 동사 공시 자료,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II.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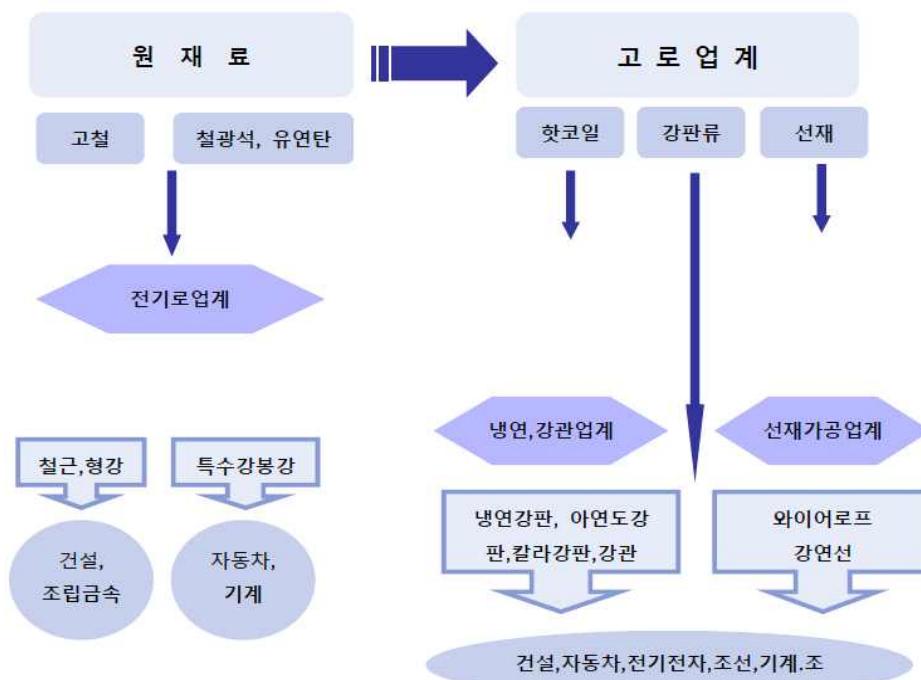
2020년 국내 철강 수요, 최저치 전망

철강산업은 전반적으로 COVID-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감소하여 전체 출하량이 감소하였으며, 생산량도 전년대비 감소 추세에 있다.

철강산업은 고로, 전기로, 압연 및 가공설비를 갖추고, 각종 금속광, 금속 스크랩 또는 쪄꺼기 를 제련, 정련, 용해, 합금, 처리, 주조, 압출, 압연, 연신, 금속 표면처리 및 기타 처리하여 철강분, 철강괴, 페들바, 파일링, 빌렛, 슬래브, 대, 판, 궤도, 봉, 선재, 관 및 기타 각종 형태의 1차 철강재 및 표면처리 강재를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표 4. 철강산업 특징

구분	특징
국가의 기초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다른 소재에 비해 강도가 뛰어나면서도 비교적 저렴하고 가공성이 좋아 주요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소재로서 꼭넓게 사용되고 있음.
독과점 생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설비의 경제적 합리적 배치를 통한 생산능률 제고와 수송비 절감, 열효율성 향상 등 생산비 절감을 고려하여 철광석에서 최종 강재 생산까지 제선, 제강, 압연의 3단계 공정이 하나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철소임.
자본집약적 장치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최소 생산규모가 100만 톤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 등 공장 1단위당 설비 규모가 거대할 뿐 아니라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긴 전형적인 자본 집약적인 장치산업임.
경기변동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철근, 형강은 건설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건설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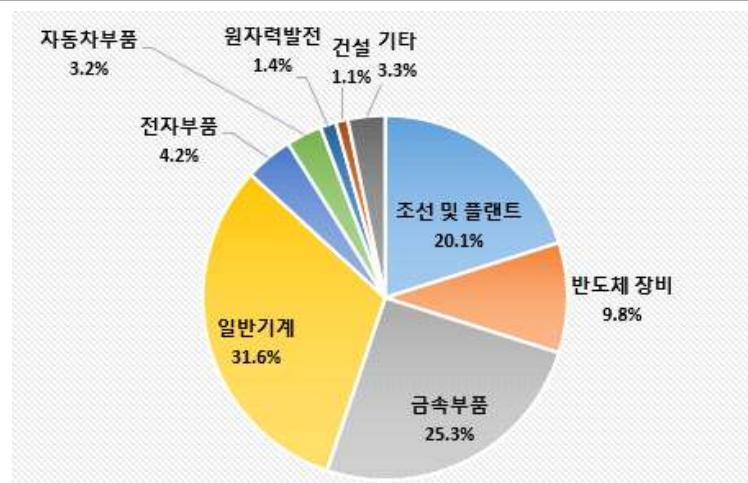


*출처: NICE산업분석보고서 철강산업(2020)



동사는 스테인리스 봉강, 판재, 선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국내 전방 산업군으로 다양하게 매출처가 분포되어 있다. 이에 국내 철강산업 전반에 걸쳐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4. 동사 매출처의 전방 산업군 분포도



*출처: 동사 홈페이지 내용 발췌,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철강재 동향 및 전망

NICE산업보고서(2020)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국내 철강산업은 내수와 수출의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전체 생산량 및 출하량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는 조선산업의 건조량 감소와 자동차 산업의 수요 부진 및 생산 차질, 가전산업의 부진, 공사 지연 및 민간부문 부진 등에 따른 국내 건설투자의 감소, 기계산업의 생산 차질 등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수출은 COVID-19의 세계적 확산과 고강도 사회격리,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및 제조산업의 생산 차질 등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수입은 원/달러 환율 상승과 국내 수요 부진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하반기 국내 철강산업은 내수 부진의 지속에도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전체 출하량이 상반기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COVID-19 사태의 영향과 글로벌 경기 부진, 세계 철강시장의 경쟁심화 등으로 연간 출하량은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는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과 완성차 업체들의 국내 생산 회복세, 조선산업의 건조량 증가가 기대되나 내수경기 부진, 주택시장 및 민간부문의 침체와 정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국내 건설투자의 감소세 확대,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등으로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COVID-19 사태의 진정 시 각국의 경기부양 노력과 자동차를 비롯한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공장 재가동,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 재개, 중국 경제의 회복세에 따른 철강재 수요 증가 등으로 상반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COVID-19의 장기화 및 재확산 우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철강재 수요의 구조적 부진, 미/중 무역 분쟁 심화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저유가의 장기화로 연간 수출량은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제품 별 수급 추이 및 전망

▶ 전기로 제강

NICE산업분석보고서(2020)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전기로 제강 산업은 COVID-19 확산에 따른 내수 경기 부진과 민간부문의 건설투자 부진, 플랜트 산업의 투자 지연 등으로 철근 및 형강의 수요가 모두 감소하며 전년동기대비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하반기는 주거용 건물 및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등으로 건설투자의 위축세가 더욱 심화되며 상반기에 이어 출하량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① 철근

2020년 1분기 철근 산업은 수출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력 내수 판매가 부진한바, 전체 출하량이 전년동기대비 11.25% 감소한 2,116,506톤을 기록하였다. 내수는 COVID-19 확산에 따른 내수경기 부진과 민간부문의 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2.04% 감소한 2,094,906톤을 기록하였다. 수출은 미얀마, 싱가포르, 팜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576.90% 증가한 21,600톤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철근의 경우 내수 중심적 산업으로 2020년 1분기 기준 수출이 전체 출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인바, 영향력은 미미하였다. 생산은 국내 철근 업계가 수요 부진에 따른 저가 수주 등을 막기 위해 탄력적 생산 체제에 들어가면서 전년동기대비 15.82% 감소한 2,100,285톤을 기록하였다.

표 5. 철근의 출하, 내수, 수출, 생산 현황

(단위: 톤)

구분	2019년 1분기	2020년 1분기	증감률
출하	2,384,795	2,116,506	-11.25(%)
내수	2,381,658	2,094,906	-12.04(%)
수출	3191	21,600	+576.90(%)
생산	2,494,923	2,100,285	-15.82(%)



The chart displays the volume of steel production, sales, imports, and exports in 2019 and 2020 Q1. The Y-axis represents volume in tons, ranging from 0 to 3,000,000. The X-axis categories are 출하 (Sales), 내수 (Imports), 수출 (Exports), and 생산 (Production). Blue bars represent 2019 Q1, and orange bars represent 2020 Q1. The data from the table is overlaid on the chart.

Category	2019년 1분기	2020년 1분기
출하	2,384,795	2,116,506
내수	2,381,658	2,094,906
수출	3191	21,600
생산	2,494,923	2,100,285

*출처: NICE산업분석보고서(2020)

② 형강

2020년 1분기 형강 산업은 수출 회복세를 보였으나, 내수 부진으로 인해 전체 출하량이 전년 동기대비 3.60% 감소한 1,125,074톤을 기록하였다. 내수는 COVID-19 확산에 따른 민간경제의 위축과 국내 건설투자의 감소, 플랜트 산업의 투자 지연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5.87% 감소한 811,959톤을 기록하였으나, 수출은 홍콩, 미국, UAE 등으로의 판매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81% 증가한 313,511톤을 기록하였다. 생산은 내수 부진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4.69% 감소한 1,093,168톤을 기록하였다.



표 6. 형강의 출하, 내수, 수출, 생산 현황

(단위: 톤)

구분	2019년 1분기	2020년 1분기	증감률
출하	1,167,089	1,125,074	-3.60(%)
내수	862,593	811,959	-5.87(%)
수출	304,942	313,511	+2.81(%)
생산	1,146,960	1,093,168	-4.69(%)

*출처: NICE산업분석보고서(2020)

▶ 판재류

① 열연강판

2020년 1분기 열연강판 산업은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하여 전체 출하량이 전년동기대비 1.12% 감소한 4,372,840톤을 기록하였다. 내수는 COVID-19 확산에 따른 경기부진과 자동차 산업의 생산 차질, 가전산업의 부진, 국내 건설투자의 위축, 조선 건조량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1.35% 감소한 2,518,936톤을 기록하였다. 수출 역시 전년동기대비 0.80% 감소한 1,853,904톤을 기록하였다. 생산의 경우 현대제철의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광양제철소 3고로 개수와 4열연 신예화 등으로 포스코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52% 감소한 9,459,404톤을 기록하였다.

표 7. 열연강판의 출하, 내수, 수출, 생산 현황

(단위: 톤)

구분	2019년 1분기	2020년 1분기	증감률
출하	4,422,371	4,372,840	-1.12(%)
내수	2,553,407	2,518,936	-1.35(%)
수출	1,868,855	1,853,904	-0.80(%)
생산	9,508,850	9,459,404	-0.52(%)

*출처: NICE산업분석보고서(2020)

② 냉연강판

2020년 1분기 냉연강판 산업은 내수와 수출의 부진이 심화되며, 전체 출하량이 전년동기대비 7.22% 감소한 2,330,534톤을 기록하였다. 내수는 전방 자동차 산업의 수요 부진 및 생산 차질, 가전산업의 생산 감소, 국내 건설투자의 위축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8.99% 감소한 1,067,163톤을 기록하였다. 수출 역시 고강도 사회 격리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생산 공장들의 가동 중단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5.68% 감소한 1,263,371톤을 기록하였다. 생산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4.95% 감소한 2,353,400톤을 기록하였다.



표 8. 냉연강판의 출하, 내수, 수출, 생산 현황

(단위: 톤)

구분	2019년 1분기	2020년 1분기	증감률
출하	2,511,893	2,330,534	-7.22(%)
내수	1,172,578	1,067,163	-8.99(%)
수출	1,339,452	1,263,371	-5.68(%)
생산	2,475,960	2,353,400	-4.95(%)

*출처: NICE산업분석보고서(2020)

③ 중후판

2020년 1분기 중후판 산업은 수출 증가세로 둔화된 가운데 내수가 부진하여 전체 출하량이 전년동기대비 3.50% 감소한 2,343,398톤을 기록하였다. 내수는 국내 조선산업의 충분한 수주잔량 확보에도 불구하고 COVID-19의 확산에 따른 경기부진과 선박의 인도 지연 등으로 후판 수요가 부진한바, 전년동기대비 6.61% 감소한 1,704,498톤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수출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로의 판매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5.91% 증가한 638,900톤을 기록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되었다. 생산은 내수 부진으로 인해 2,367,156톤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수준에 정체되었다.

표 9. 중후판의 출하, 내수, 수출, 생산 현황

(단위: 톤)

구분	2019년 1분기	2020년 1분기	증감률
출하	2,428,392	2,343,398	-3.50(%)
내수	1,825,140	1,704,498	-6.61(%)
수출	604,248	638,900	+5.91(%)
생산	2,367,156	2,367,156	0(%)

*출처: NICE산업분석보고서(2020)

▶ 특수강 봉강

2020년 1분기 특수강 봉강 산업은 내수와 수출의 부진이 이어지며 전체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5.83% 감소한 592,550톤을 기록하였다. 내수는 기업들의 설비투자 회복세에도 자동차 산업의 생산 차질 및 건설용 중장비 수요 부진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25% 감소한 483,123 톤을 기록하였다. 수출은 글로벌 자동차 공장의 생산 중단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98% 감소한 109,427톤을 기록하였다.



표 10. 특수강 봉강의 출하, 내수, 수출 현황

(단위: 톤)

구분	2019년 1분기	2020년 1분기	증감률
출하	629,236	592,552	-5.83(%)
내수	494,243	483,123	-2.25(%)
수출	111,637	109,427	-1.98(%)

Category	2019년 1분기 (톤)	2020년 1분기 (톤)	증감률 (%)
출하	629,236	592,552	-5.83%
내수	494,243	483,123	-2.25%
수출	111,637	109,427	-1.98%

*출처: NICE산업분석보고서(2020)

▶ 선재

2020년 1분기 선재 산업은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하며 전체 출하량이 전년동기대비 5.30% 감소한 824,976톤을 기록하였다. 내수는 국내 건설투자의 감소, 공사 지연, 가전산업의 부진, 기계산업의 더딘 회복세 등으로 경강선재와 연강선재의 판매가 부진하였으며, 자동차 업계의 생산 감소로 인해 CHQ와이어 판매 역시 감소하며 전년동기대비 3.55% 감소한 582,286톤을 기록하였다. 수출 역시 COVID-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경기부진과 고강도 사회격리, 글로벌 자동차 공장들의 생산 중단 등으로 경강선재와 CHQ와이어의 해외 수요가 모두 부진하여 전년동기대비 9.35% 감소한 235,690톤을 기록하였다. 이에 선재 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5.37% 감소한 849,880톤을 기록하였다.

표 11. 선재의 출하, 내수, 수출, 생산 현황

(단위: 톤)

구분	2019년 1분기	2020년 1분기	증감률
출하	871,147	824,976	-5.30(%)
내수	603,718	582,286	-3.55(%)
수출	260,000	235,690	-9.35(%)
생산	898,108	849,880	-5.37(%)

Category	2019년 1분기 (톤)	2020년 1분기 (톤)	증감률 (%)
출하	871,147	824,976	-5.30%
내수	603,718	582,286	-3.55%
수출	260,000	235,690	-9.35%
생산	898,108	849,880	-5.37%

*출처: NICE산업분석보고서(2020)

▶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2020년 1분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산업은 COVID-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감소하여 전체 출하량이 전년동기대비 10.83% 감소한 281,098톤을 기록하였다. 내수는 자동차 업계의 조업 일시 중단 등 생산 감소, 조선산업의 건조량 감소, 국내 건설투자 의 감소세와 가전산업의 부진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2.18% 감소한 170,857톤을 기록하였다.



표 12.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의 출하, 내수, 수출, 생산 현황

(단위: 톤)

구분	2019년 1분기	2020년 1분기	증감률
출하	315,238	281,098	-10.83(%)
내수	194,554	170,857	-12.18(%)
수출	120,693	110,241	-8.66(%)
생산	303,666	270,506	-10.92(%)



Category	2019년 1분기	2020년 1분기
출하 (Output)	315,238	281,098
내수 (Domestic Sales)	194,554	170,857
수출 (Exports)	120,693	110,241
생산 (Production)	303,666	270,506

*출처: NICE산업분석보고서(2020)



III. 기술분석

과학적 부식현상을 방지하는 합금강 소재, 스테인리스강

스테인리스강은 니켈, 크롬 합금 함량에 따라 기계적, 물리적 성질이 변화한다. 동사는 주로 Austenite계, Ferrite계, Martensite계 스테인리스강 소재를 취급하고 있으며, 형태별로 봉강, 판재, 선재를 가공 생산하고 있다.

■ 기술 개요

스테인리스강(Stainless Steel)은 최소 10.5 혹은 11%의 크롬(Cr)이 들어간 강철 합금이다. 스테인리스강은 영문이 뜻하는 바와 같이 녹, 부식이 일반 강철에 비해서 적은 특징을 가진다. 또한, 크롬을 넣지 않은 탄소강과는 다르다. 탄소강은 공기와 습기에 부식되며, 표면의 철산화물이 생기게 되고 더 많은 철산화물이 생기는 것을 가속화시킨다. 반면, 크롬이 들어간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크롬 산화물이 표면의 부식을 예방해주고, 금속 전체적 구조에 부식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예방해주는 역할을 한다.

표 13. 스테인리스강 구성 및 특징

구분	스테인리스강	일반 탄소강
구조	Cr ₂ O ₃	Fe-Oxide층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피막이 얇고 치밀하여 외부 산소의 침투가 어려움.방사선 등 가혹한 환경에서는 피막이 파괴되어 녹이 슬 수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피막이 두껍고 다공질이기 때문에 외부 산소의 침투가 용이함.일반적인 대기환경에는 쉽게 녹이 슬며, 근본적으로 녹 발생을 방지할 수 없음.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스테인리스강은 크롬에 대한 철(Fe)의 비율을 조절하고, 니켈(Ni), 몰리브덴(Mo), 망간(Mn), 질소(N)와 같은 다른 요소를 첨가하여 내식성 유지용 보호막(Cr₂O₃)층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합금 성분에 따른 스테인리스강 강종은 각각 특유의 기계적 물리적 성질을 가지며, 국내/국제 규격 또는 표준 규격에 따라 다양하게 생산될 수 있다.

표 14. 대표적인 스테인리스강 제품의 특성

구분	강종 STS 410 (13Cr계)	STS 430 (18Cr계)	STS 304, STS 316 (18-8계)	STS 631 (16-7-1A1계)
자성	○	○	X (단, 냉간 가공 후 다소 자성이 있음)	X (단, 열처리 경화 후 다소 자성이 있음)



녹 발생 여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온내에서는 녹 발생이 거의 없으나, 옥외사용 시, 다소 문제가 생김.	뛰어난 내식성을 가지고 있음.	18-8계와 거의 동일함.
충격/신장	18-8계에 비해 떨어짐.	18-8계에 비해 떨어짐.	극히 양호하며, 성형성이 풍부함.	열처리 경화 후, 높은 경도와 강도를 가짐.
열팽창	보통강과 거의 동일	보통강과 거의 동일	보통강의 약 1.5배	보통강과 거의 동일
열전도도	보통강의 1/2배	보통강의 1/2배	보통강의 1/2배	보통강의 1/2배
열처리 경화성	있음.	없음.	없음.	-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스테인리스강은 화학성분에 따라 Fe-Cr계, Fe-Cr-Ni계로 분류되고, 금속 조직상으로 Austenite계, Ferrite계, Martensite계, Duplex계로 분류된다. Austenite계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304계열로 내식성, 내열성, 저온강도가 양호한 특징을 가지며, 가정용품에서부터 배관, 자동차 부품, 건축 자재, 선박부품 등에 사용되는 304강종이 있다. 또한 304강에 티타늄(Ti)을 첨가하여 입계 부식을 방지하고, 항공기 배관, 보일러 덮개, 보일러용 파이프 등에 사용되는 321강종이 있다. 이외에 몰리브덴(Mo)이 첨가되어 내식성과 고온강도가 우수하고, 수도 배관, 해안지역 시설물, 화학/제지/염료/비료 제조 설비 등에 사용되는 316강종 등이 있다.

그림 5. 스테인리스강 분류



표 15. Austenite계 스테인리스강

종류	특징 및 용도
3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막이 얇고 치밀하여 외부 산소의 침투가 어려움 비자성이나 냉간 가공 후, 자성을 가짐. 용도: 열차, 항공기, 벨트 컨베이어, 자동차, 볼트, 너트, 스프링, 태엽
301L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1강에 C함량을 낮추어 용접부 내임계 부식성을 개선한 강종으로 낮은 C함량에 의한 강도 저하를 N첨가로 보강한 강종임. 용도: 철도 차량용 프레임 및 외장재



3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강종으로 내식성, 내열성, 저온강도, 기계적 성질이 양호함. Deep Drawing, Bending 등 상온 가공성이 좋으며, 열처리로는 경화되지 않음. 자성이 없으며, 사용온도는 $-196\sim800^{\circ}\text{C}$임. 용도: 가정용(식기, 싱크대, 실내 배관, 온수기, 욕조, 보일러), 자동차 부품(와이퍼, 머플러, 몰딩), 의료기구, 건축자재, 화학, 식품공업, 석유산업, 낙농산업, 선박부품
304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탄소 304강으로 내식성은 보통상태에서 304강과 비슷하나, 용접 후, 혹은 응력제거 후의 임계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뛰어남. 열처리 없이도 내식성 보유함. 일반적으로는 400°C 이하에서 사용. 자성이 없으며, 사용온도는 $-196\sim800^{\circ}\text{C}$임. 용도: 내임계 부식성이 크게 요구되는 화학, 석탄, 석유산업 분야 기기, 건축자재, 내열부품 및 열처리가 곤란한 부품
304N1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4강에서 S, Mn 함량을 낮추고, N을 첨가하여 연성저하를 방지하고, 강도가 높아지며, 재료의 두께가 감소 용도: 구조용, 가로등, 저수조, 수도관
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Mo 첨가로 내식성, 내공식성, 고온강도가 특히 우수하여 가혹한 조건에서 사용됨. 가공 경화성이 우수하며, 자성이 없음. 용도: 해수설비, 화학, 제지, 염료, 초산, 비료 제조설비, 사진, 식품공업, 해안지역 시설물, Rope, CD bar, 볼트, 너트 등
3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4강에 Ti를 첨가하여 임계부식을 방지한 것으로 $430\sim900^{\circ}\text{C}$ 상태의 사용에 적합함. 용도: 항공기, 배기관, 보일러 커버

*출처: 스테인리스 스틸 클럽

Ferrite계 스테인리스강은 대표적으로 열팽창률이 낮고, 성형성과 내산화성이 우수해 가전부품, 컴퓨터 부품, 가스레인지나 싱크대 상판, 건축 내외장재 등에 두루 사용되는 430강종이 있다. 또한, 430강종에 구리(Cu)와 니오븀(Nb)을 첨가한 430J1L강종은 내식성, 성형성, 고온 내산화성이 양호해 주방기기, 가전기기,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건축 내외장 등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크롬(Cr) 함량이 높으며, 엘리베이터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445NF, 크롬 함량을 더욱 높여 ASEM 센터와 인천공항 지붕의 자재 등으로 사용되는 446M강종도 있다.

표 16. Ferrite계 스테인리스강

종류	특징 및 용도
409L	<ul style="list-style-type: none"> Ti 첨가로 고온내식성 및 고온강도 양호 용도: 자동차 배기관, 열교환기, 컨테이너 등
410L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0강에서 C함량을 낮춰 가공성, 용접굴곡성, 내고온산화성이 우수하며, 자성이 있음. 용도: 기계 구조용, 엔진 배기관, 보일러 연소실, 버너
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Ferrite계의 대표적인 강종으로 열팽창률이 낮고 성형성 및 내산화성이 우수함. 용도: 내열기구, 버너, 가전부품, 2종 양식기, 싱크대 상판, 외장재, 볼트, 너트, CD bar, 메쉬
430J1L	<ul style="list-style-type: none"> 430강에 Cu, Nb를 첨가하여 내식성, 성형성, 용접성 및 고온 내산화성이 양호함 용도: 세탁조, 자동차 배기관, 전자부품, 3종 바닥냄비
436L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열성, 내식성이 양호하며, Nb, Zr를 함유하여 가공성, 용접성이 우수함. 용도: 건축외장용, 자동차 부품, 급탕, 급수설비

*출처: 스테인리스 스틸 클럽



Martensite계 스테인리스강 중 410강종은 고강도에 가공성이 우수해 기계 부품은 물론 주방 용 칼날, 스푼, 포크 등 식기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410강종에 망간(Mn)과 니켈(Ni) 함량을 조절하여 경도를 높인 410B강종은 오토바이 디스크 브레이크 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 제품 대비 가공성, 내식성, 강도, 내마모성이 높인 420J1, 420J2강종 등의 제품은 내식성, 내마모성이 요구되는 고급 식탁용 나이프나 기계부품 등에 사용된다.

표 17. Martensite계 스테인리스강

종류	특징 및 용도
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Martensite계의 대표 강종으로 강도는 높으나 가혹한 부식 환경에는 부적합함.가공성은 우수하고, 열처리에 의하여 경화되며, 자성이 있음.용도: 칼날, 기계부품, 석유정제장치, 볼트, 너트
420J1	<ul style="list-style-type: none">소입상태에서 경도가 높고, 내식성이 좋으며, 자성이 있음.용도: 1종 양식기(나이프), 터빈 블레이드
420J2	<ul style="list-style-type: none">420J1보다 소입 후, 경도가 높으며, 자성이 있음.용도: 칼날, 노즐, 밸브, 막대자, 1종 양식기(가위, 나이프)

*출처: 스테인리스 스틸 클럽

■ 주요 기술

▶ 봉강 사업

동사는 세아창원특수강(국내 봉강 최대 공급업체, 전체 시장의 61~67% 공급)과 장기간 거래를 실시해오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고 있다. 이를 통해 원자재의 안정적인 조달능력과 함께 원재료 구매 시, 최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표 18. 원자재 수급 현황(단위: 톤)

구분	2018년	2019년
수요	국내	71,000
	수출	11,200
공급	세아창원특수강	43,600
	수입	27,400

*출처: IR 자료,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스테인리스강 300, 400계 등 약 2천여 종의 품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1,500여 곳의 거래처를 확보하여 다양한 산업군에 납품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 설비로 Band saws 20대, Circular saws 5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Band saws의 경우 톱날을 고정하는 날의 장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는 장력이 약하면 재료의 절단선이 구부러지기 쉽고, 장력이 강하면 톱날이 부러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설비를 사용할 때, 전문가적 가공 숙련도가 요구되고 있다. 동사는 해당 분야 기술 전문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소재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숙련된 가공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표 19. 생산실적 및 가동률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생산실적	23,078(톤)	21,976(톤)	21,002(톤)
구분	연동가동 가능시간	연간 실제 가동시간	평균 가동률
2019년 가동률	3,000(시간)	2,885(시간)	96.2(%)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20. 스테인리스 봉강 생산 공정도

① 소재 입고 및 전산 입력	② 소재 분류(적재)	③ 소재 가공(절단/절삭)
④ 작업 완료 및 전산 입력	⑤ 검사 및 포장	⑥ 출하 및 유통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판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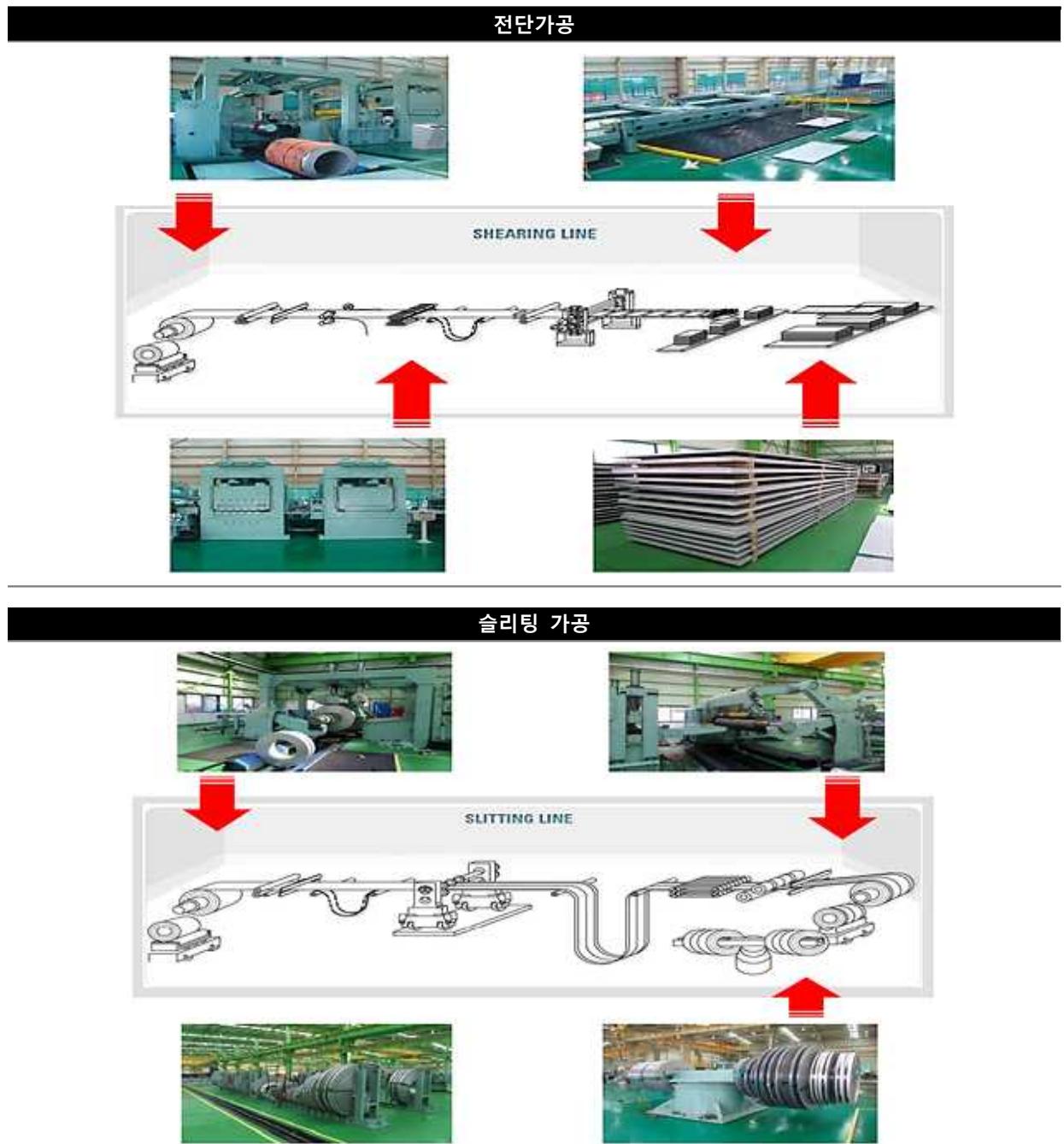
판재 제품의 주력 생산 제품으로 열간압연 강판(후판, Thick plate)이 있으며, 절단가공 라인(HR Shear line, Slitting line, Flat Bar line 및 CR line)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제조되고 있다.

전단가공(Shearing)은 전단력을 이용한 가공으로 금속재료의 가공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 쌍의 전단날이 서로 닫힘으로써 재료를 절단하는 것을 보통 전단기 또는 시어(Shear)라 한다. 전단기의 상하 날은 서로 평행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일정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 각도를 전단각이라고 한다. 특히, 동사는 길로틴 또는 동력전단기를 사용하여 압연되어 나오는 강재를 일정한 가로/세로 크기로 절단함으로써 판재를 제조하고 있다.

한편, 슬리팅 가공(Slitting)은 평행한 축의 회전 커터를 가진 직선 전단기 즉, 슬리터를 사용하는 가공방법이다. 코일 형태로 감겨 있는 판재 원반을 가로로 두고 절단하여 내경/외경이 같고 폭만 좁아진 코일형 판재를 제조하는 것이다.



그림 6. 판재 생산 공정도



▶▶ 선재 사업

선재 제품의 주력 생산 제품으로 CD bar(Cold Drawn bar)가 있다. CD bar는 열간압연된 철강제품으로 선재, 열연봉강, 코일봉강을 원료로 하여 냉간인발된 제품의 총칭이다. 열간단조는 물론이고 냉/온간 단조 및 기계 가공을 통해 기계류나 자동차 정밀 부품 생산에 이용되고 있는 고부가가치 소재이다. 와이어로드(Wire-rod)를 가공하여 4~33Ø 규격으로 물성을 향상시켜 표면, 경도 등이 우수한 특징을 가지며, 환봉을 비롯하여 육각봉, 사각봉 등을 생산하고 있다.



표 21. CD bar 생산 공정도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CD bar 주요 생산 설비로 CDM(Combined Drawing M/C) 3B, 1B-8, 1B-5 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월 1,000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7. CD bar 생산현황 및 생산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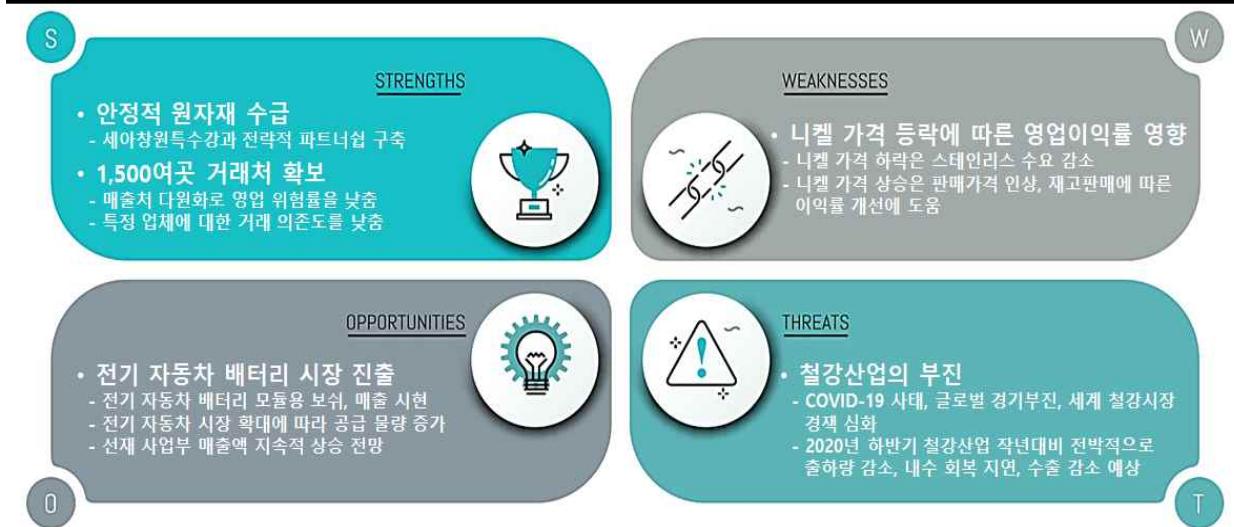


*출처: IR 자료,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SWOT 분석

그림 8. 동사 SWOT 분석



*출처: NICE평가정보(주)

▶▶ (Strengths Point) 안정적 원자재 수급 및 1,500여 곳 거래처 확보

동사는 다양한 전방산업별 고객 포트폴리오를 확보해 법인 전환 후, 약 30년간 적자 없이 흑자를 기록해왔다. 세아창원특수강과 상호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조달 받고 있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간 거래를 유지해오고 있다. 경인지역 최대 스테인리스 봉강 구매업체로 경쟁업체 대비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아 우수한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1,500여 곳에 이르는 고객사를 보유하여, 전 산업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등 매출처 다원화를 통해 영업 위험률을 낮추었다. 특정 업체에 대한 거래 의존도도 낮춰 매출 안정성을 높였다.

▶▶ (Weaknesses Point) 산업 특성상 니켈 가격 등락에 따른 영업이익률 영향

해당 산업 특성상 니켈 가격의 등락이 영업이익에 직결됨에 따라 동사 스테인리스강 사업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테인리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그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니켈의 금속 가격이다. 니켈은 스테인리스의 장점인 우수한 내식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스테인리스 원가에 차지하는 니켈의 매입 가격 비중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2020년 니켈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2월 최고치 톤당 28,850달러에서 2016년 2월 톤당 8,100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2020년에는 16,000대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니켈 가격의 하락은 산업경기의 하락으로 스테인리스 수요 감소로 이어져 동사 수익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니켈 가격의 상승은 스테인리스의 수요 증가와 판매가격 인상, 재고판매에 따른 이익률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



▶▶ (Opportunities Point) 전기 자동차 부품 시장 진출, 전방 활로 개척

최근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에 대한 수요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용 모듈 소재, LNG 선박용 초저온 소재 등 전방산업에서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모듈 제조 공정에서 외부 충격, 열, 진동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로 스테인리스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동사는 2019년 5월부터 전기 자동차 배터리 모듈용 보쉬(기둥 역할, 스테인리스 소재 제작)에 대한 매출로 50억 원 이상을 시현하였으며, 2020년 7월에는 단일 수출 계약 건으로 최대 규모인 300톤 규모의 공급계약을 대만 업체와 체결하였다. 향후에도 전기 자동차 시장 확대에 따라 공급 물량이 증가할 것이며, 선재 사업부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Threats Point) 철강 수요,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전망

2020년 국내 철강 수요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파이낸스투데이 작성,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2020년 철강 내수는 제조업, 건설 등 주요 수요 산업이 COVID-19 직격탄을 맞으며 작년대비 5,320만 톤보다 8% 감소한 4,800만 톤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철강 내수는 2007년 처음으로 5,000만 톤을 넘어선 뒤, 2008년 5,860만 톤대를 기록했다가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4,540만 톤까지 떨어졌다. 2010년부터 다시 증가해 2019년까지 10년간 5,000만 톤대를 유지하였다.

포스코경영연구원 공문기 연구위원에 따르면, 자동차, 조선, 건설경기 동반 부진으로 판재류와 봉/형강류 수요가 모두 대폭 감소했으며, 2021년 한국판 뉴딜정책 등 경기부양책 효과로 단기적인 회복이 기대되지만 연간 5,000만 톤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은 COVID-19 사태의 진정 시 각국의 경기부양 노력과 자동차를 비롯한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공장 재가동,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 재개, 중국 경제의 회복세에 따른 철강재 수요 증가 등으로 상반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COVID-19의 장기화 및 재확산 우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철강재 수요의 구조적 부진, 미·중 무역 분쟁 심화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저유가의 장기화 연간 수출량은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IV. 재무분석

국내 스테인리스 봉강 1위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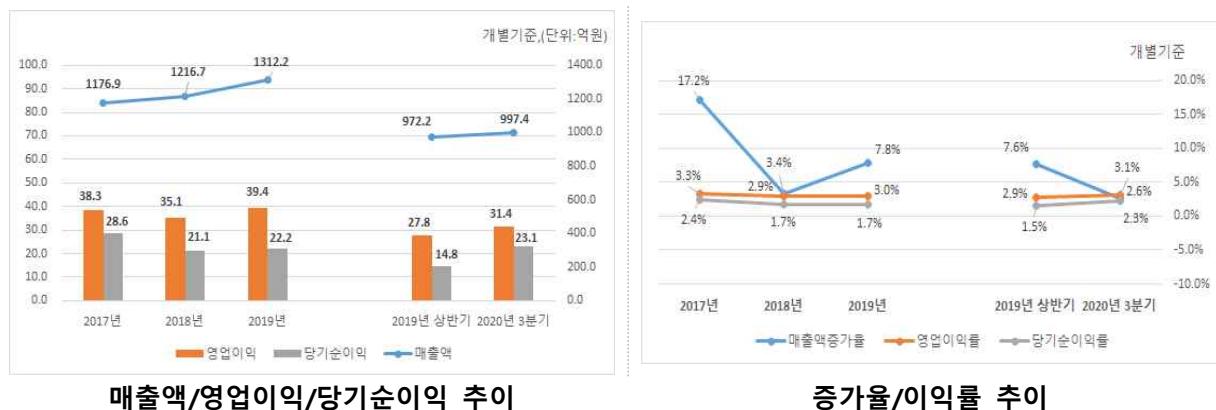
동사는 국내 스테인리스 소재 가공 전문기업으로, 수익창출력과 재무기반이 안정적이며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 수출 호조에 힘입어 다시 성장세 진입

동사는 스테인리스 가공 판매 단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세 품목은 크게 스테인리스 봉강과 후 2가지로 나뉜다. 매출의 90% 이상은 내수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2018년부터 수출 물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17년 개별기준 매출 1,177억 원, 2018년 1,217억 원, 2019년 1,312억 원을 기록하며 외형 성장을 견인하였다.

동사의 제품 판매의 경우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판매방식을 취하고 있어 가격경쟁 측면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객 확보가 안정적이다. 2016년 국내 매출처 850여 곳에서 2019년 1,500여 곳으로 3년 만에 약 2배 확장되며 실적 성장을 뒷받침해주었다.

그림 9. 동사 연간 및 3분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개별 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 3분기보고서(2020)

■ 일정한 수익구조 유지를 통한 영업이익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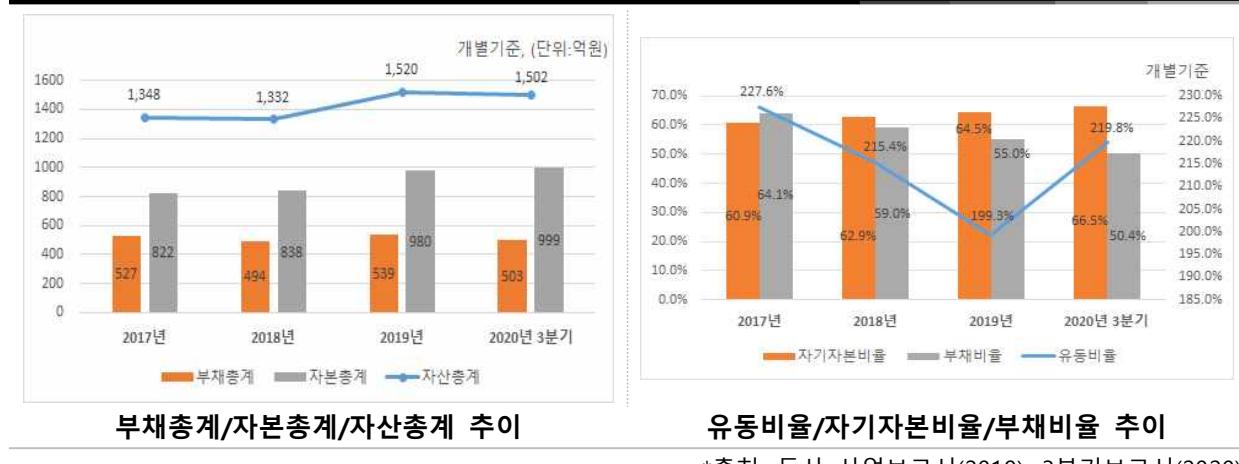
동사의 2019년 개별 영업이익은 39억 원, 당기순이익은 22억 원으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은 3.0%, 매출액순이익률은 1.7%를 각각 기록하였다. 한국은행 산업평균 수치인 4.13%, 2.84%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나, 업종 평균 범위 내에는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6년 영업이익률은 3.8%, 2017년은 3.3%, 2018년은 2.9%로 매년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수익구조가 안정적으로 평가된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동사는 자본집약적인 생산구조를 지니고 있다. 고정비적 성격인 시설감가상각과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결국 수익성을 결정하는 것은 매입단가이다. 주요 원재료인 스테인리스의 Kg당 평균 매입단가가 2,991원으로 급락했던 2016년 외에는 평균 3,500원선에서 안정적인 추이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원재료비 등락에 따른 비용 부담은 제품판가 반영을 통해 고객사에 전가되고 있어 동사의 마진율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차입금 이자 등의 금융원가가 매년 12억 원 선에서 지출되고 있어 영업이익률 대비 순이익률은 다소 아쉬운 수준이다.

그림 10. 동사 연간 및 3분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개별 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 3분기보고서(2020)

■ COVID-19 유행에도 실적은 선방, 재무구조는 개선

2020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은 997억 원(+2.6% YoY), 영업이익은 31억 원(+12.9% YoY)을 기록하며 견조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매출의 경우 늘어난 수출물량과 제품 판매단가 상승에 의한 명목적 증가로 해석된다. 반면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급여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상적 경비 절감과 감가상각비의 감소에 힘입어 실질적인 개선을 나타내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변동이자율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일부 완화된 것으로 분석되며, 분기순이익만 23억 원(+56.1% YoY)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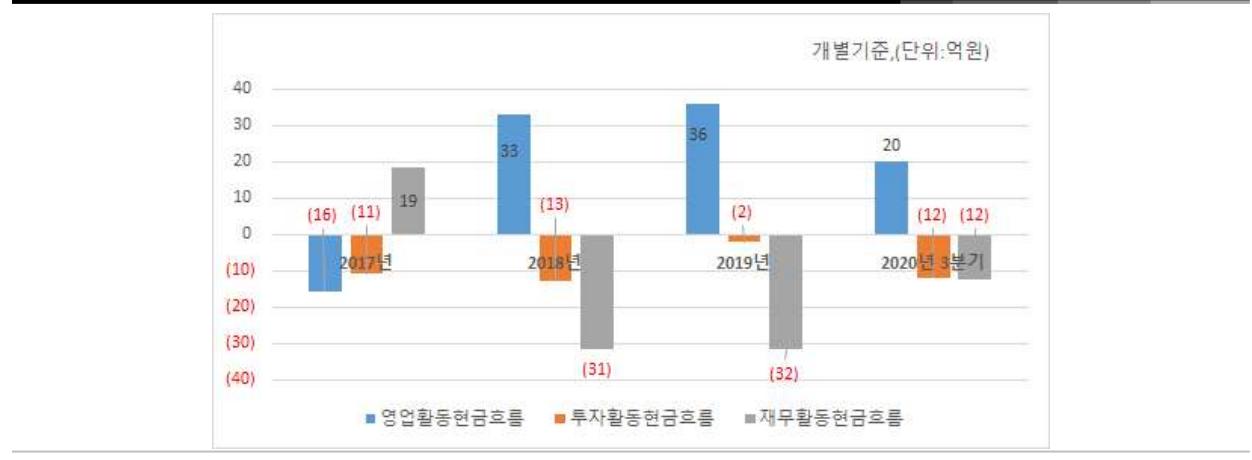
COVID-19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강점인 탄탄한 재무구조는 유지되고 있다. 2020년 3분기 기준 총자산 규모 1,502억 원 중 부채가 503억 원으로, 이를 비율로 환산 시 부채비율 50.4%, 자기자본비율 66.5%이며 최근 6개년에 걸쳐 꾸준히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차입금은 약 351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1/3은 시설자금이며, 1/3은 무역금융, 나머지 1/3은 일반 운전자금 목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만기구조가 고른 편이고 평균 차입이율이 높지 않아 여신 상태는 건전하다. 차입금의존도 23.5%, 유동비율 219.8%로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은 동업종 대비 우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 영업활동에 기반한 양호한 현금흐름 지속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18년 33억 원, 2019년 36억 원, 2020년 3분기는 20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세가 지속되고 있다. 영업창출현금은 설비 취득을 통한 사업 재투자와 배당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차입금 상환을 통한 건전한 여신 상태 유지에 기여되고 있어 그 쓰임새가 바람직하다. 또한 당분기 말 현금성자산 28억 원을 제외하고도 단기금융상품 6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시, 동사의 제반 유동성과 현금흐름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1.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개별 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 3분기보고서(2020)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2020년 사상 최대 수출 실적 전망, 전기 자동차 부품 시장 본격 진출

수출 호조에 따른 영향으로 2020년 상반기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였다. 특히, 2020년 2분기는 2011년 4분기 최대 매출액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에 더해 전기 자동차 배터리 시장 등 전방산업에 대한 활로를 활발히 개척하고 있다.

■ 2020년 2분기 매출액 최대 기록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동사는 2020년 2분기, 8년여 만에 매출액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전년 동기대비 13.4% 증가한 355억 원 규모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2011년 4분기 368억 원 달성을 이후 분기 매출액으로 가장 큰 규모이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97.6% 증가한 13억 원 규모를 기록하였다. 이는 수출 호조에 따른 것으로 2020년 상반기 수출액은 50억 원 규모로 전년동기대비 21.5% 증가하였다. 2017년 수출을 시작으로 2018년 95억 원, 2019년 88억 원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용 모듈 소재, LNG 선박용 초저온 밸브 소재 등 전방산업에서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며,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 전기 자동차 부품 시장으로 전방산업 활로 개척

동사는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전기 자동차 배터리, LNG선박용 초저온 밸브 소재 등 전방산업에 대한 활로를 개척해오고 있다. 2019년 5월에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 모듈용 보쉬를 판매하여 약 5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시현하였으며, 전기 자동차 부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선재 사업에 대한 동사의 매출액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재 사업 수주 증가에 따라 CDM 라인 설비를 늘려 기존 월 700톤에서 1,000톤으로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등 전방산업에 대한 수요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협약 체결로 자산가치 증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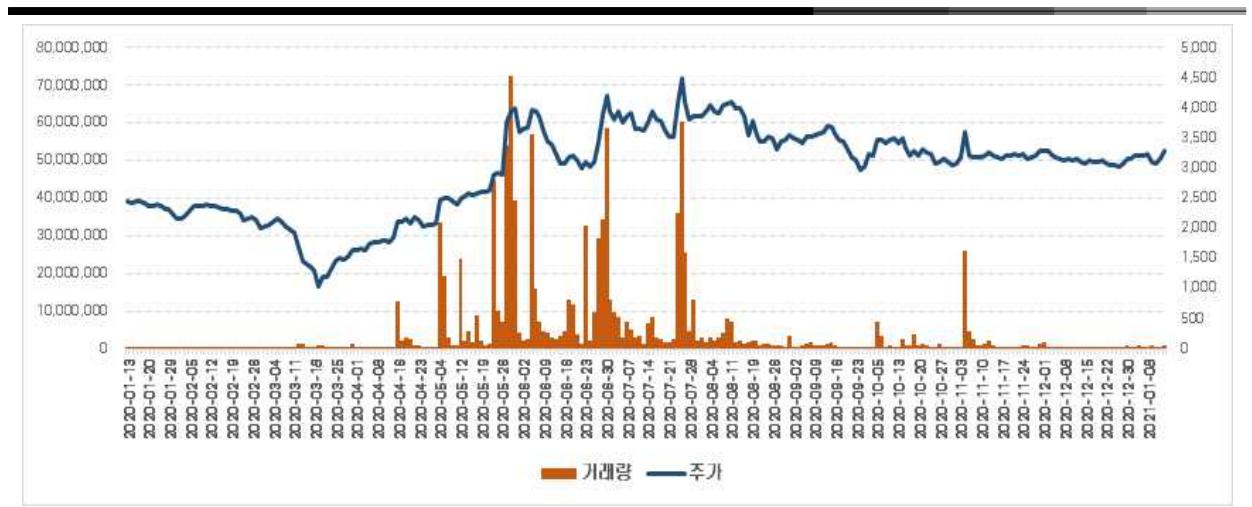
한국수자원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컨소시엄이 화성 국제테마파크 개발과 관련한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정부의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대표 과제로 2019년 11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등 관련 기관 수장들이 모두 참여하여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포식을 진행하였다. 2020년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문호리 일원 316만m²에 4.6조 원의 투자 계획을 확정하여 본격적 사업이 시작되었다. 동사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인근 토지 55,408m²를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자산가치 상승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 최근 6개월 이내 발간 보고서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출처: Kisvalue(2021.01.)